

문화

㈜영무건설·토건 박헌택 대표



아파트 1층을 창작공간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문화향기 솔솔~

(주)영무건설, 미테 우그로와 손잡고 아파트 내 창작공간 조성

아파트의 단절된 공간 속으로 예술이 스며들어 광주의 문화적 토양을 육성시킬 계기가 마련됐다. 지역 기업이 문화예술단체와 손잡고 문화소통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젊은 작가들에게 창작 공간과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문화 지원 활동에 팔을 걷어붙이면서다.

박헌택이 '배고픈' 예술인을 지원한다는 명분에 매달린 일회성 행위가 아닌, 문화 소통 공간을 조성해 문화 시민 양성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자양분으로 구실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무건설·토건(대표 박헌택)은 21일 대안 예술공간인 미테 우그로(Mite-Ugro)와 아파트 건설에 따른 창작 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측은 앞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때마다 1층에 창작 공간을 만들어 지역 젊은 작가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창작 지원금을 주면서 작가

영무건설, 젊은 작가들에 창작공간·지원금 제공

미테우그로, 입주작가 선정·프로그램 기획 운영

들의 예술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영무건설은 지난 2009년에도 광산구 수완택지구 영무에다움 아파트를 조성, 분양하면서 1개 동 1층 전체를 창작·전시·교육이 가능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신시키면서 지역 문화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사업을 광주·전남을 비롯, 전주·구미·의정부·세종시 등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대안예술공간인 미테우그로는 이 과정에서 예술가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창작 스튜디오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참여하고 입주작가를 선정하는 것부터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책임지게 된다.

작가와 입주민들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매년 입주작가나 주민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기획 전시를 계획하는 것도 포함된다.

"단순하게 작가들의 창작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작가들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면서 주민들과 거리감 없이 문화로 소통할 수 있는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승기 미테우그로 디렉터가 세워 놓고 있는 구상이다.

문화 수도의 힘인 젊은 작가들을 창작 의욕을 높이는 한편, 창작 스튜



조승기 미테우그로 디렉터

디오가 주민들의 문화 소통 공간이면서 '마을 공동체' 역할을 해 광주의 문화적 토양을 육성시키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는 게 박 대표와 조 디렉터의 공통점이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박헌택 대표의 "문화가 일상 속에 파고들어야 진정한



영무건설이 광주시 봉선동 음식점 '그랑비아도'에 운영중인 에다움 갤러리.

한 문화수도의 힘을 발휘한다"는 철학이 크게 작용했다.

"헬스·수영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라는 것들은 모든 아파트마다 획일화 돼있고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 참여도 크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광주가 문화수도라고 한다면 정지다. 톨모텔을 써 광고를 거창하게 하고 외관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 비슷한 비용으로 창작 스튜디오를 조성한 뒤 작가들에게 제공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참여하는 입주민들이 늘어나는 등 반응이 좋더라고요."

박대표는 사업하는 입장에서 같은 비용을 들여더라도 기업의 특성을 살리면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분야로

특하게 지원해야 하는데, 예술인들의 창작 스튜디오 조성 사업은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고급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도 효과가 컸다고 했다.

"광주가 문화수도라고 한다면 정지다. 톨모텔을 써 광고를 거창하게 하고 외관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 비슷한 비용으로 창작 스튜디오를 조성한 뒤 작가들에게 제공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참여하는 입주민들이 늘어나는 등 반응이 좋더라고요."

박 대표의 문화 정책에 대한 소신도 뚜렷했다. 문화수도를 지향한다면 '비전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로 가는 지역 젊은 예술가들이 광주에 머물러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면서 지역민들의 삶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역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졸업만 하면 서울로 가는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합니다. 지역을 지키면서 지역민들과 함께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공감대에서 출발했어요."

조 디렉터도 한마디 덧붙였다. '회색빛' 아파트가 문화의 생기를 불어넣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시기,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아닌가.

/김지은기자 dok2000@kwangju.co.kr

평화연극상에 극단 필통 '벽, 폐허...그리고 성'

최근 막을 내린 2012광주평화연극제에서 극단 '필통'의 '벽, 폐허...그리고 성'이 평화연극상을 수상했다.

광주 출신 선유현씨가 희곡을 쓴 '벽, 폐허...그리고 성'은 사랑을 구하는 한 청년을 내세워 5월 이야기를 별로 드라마로 풀어낸 작품이다.

광주연극협회가 주최한 이번 연극제는 '5·18 무대~서 길을 물었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극단 민예의

'연꽃 속의 불'(희곡 김나정), 극단 드라마 스튜디오의 '어머니의 바다'(희곡 정경진), 극단 결판의 '돌아온 김거물'(희곡 오세혁), 극단 '21의 '테러리스트'(희곡 박재완)씨 등 5개 작품이 참여했다.

수상작은 전문평가단과 시민평가단(32)이 심사를 통해 선정했으며 수상작은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내년 평화연극제에서 다시 공연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있나



'Binary opposition'

박대조 '지혜의 눈전... 내달 10일까지 고흥 남포미술관

작품 속 인물들의 눈동자는 강렬하다. 뭔가 염원하는 듯한, 안타까운 눈망울은 단번에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을 사로잡는다.

고흥 남포미술관이 다음달 10일까지 마련한 박대조의 '지혜의 눈전'은 어린이들의 눈을 통해 현대 사회의 절망과 희망을 엿볼 수 있는 자리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랜 시간 전통수묵화의 세계에 몰두하다가 돌을 이용하여 사진과 수묵을 결합, 현대미술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온 작가의 작품 60여점이 전시된다.

작품 형식도 이색적이다. 얇은

대리석 위에 사진을 전사시켜 조은 흔적 위에 먹을 채워넣는 점묘음각 기법으로 만든 작품이나, 렌티큘러, LED를 활용한 라이트박스 방식의 작업으로도 작품을 내놓았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동자를 통해 세상 풍경과 인간 내면의 감성을 담아내고 싶었다는 게 작

가의 설명이다. 이 때문인지 작품 곳곳에서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통해 전쟁과 테러, 환경오염 등의 문제들을 비판하고 싶어하는 작가의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문의 061-832-0003. /김지은기자 dok2000@kwangju.co.kr

요문화아카데미 '통섭형문화기획자' 과정 신입생 모집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단장 김종윤)은 26일까지 아시아문화아카데미의 '통섭형 문화기획자' 교육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중앙대 산학협력단(단장 김원용)이 운영하는 이 아카데미는 추진단의 아시아문화기획 전문인력 양성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소수정예 교육 과정이다.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1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통섭형 문화기획자 교육과정은 6월부터 9월까지 14주 동안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에서

행된다.

강사진은 황지우(시인), 김 훈·방현석·김형수·김남일(이상 소설가)이현승(영화감독), 임경순·최승진(포스트학 교수), 이충직(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장), 이영진(광주교대 초빙교수), 조광희(변호사·영화사 봄 대표), 바오닌(베트남 작가), 응우옌 흥비(베트남 국립대 교수), 멘드 네트루키(몽골국립과학기술대 교수) 등이다.

원서 마감은 오는 26일까지다. 문의 02-817-505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계종 교육원, 해남 미항사에 단기 출가학교 개설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현응스님)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남 해남 미항사에서 단기 출가학교를 개설한다. 출가학교는 이십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도법스님(실상사), 용타스님(행복마을 이사장), 금강스님(미항

사), 해민스님(미국 햄프셔대 교수), 자현스님(월정사), 조성택 고려대 교수, 고전평론가 고미숙 씨 등이 강사로 나온다. 오는 6월22일까지 이메일(kimpd@buddhism.or.kr)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2011-1803. /연남스

since 1982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 봉사 OFF SALE** www.kjhr.com

기간: 2012년 3월 15일~8월 31일
독일보청기 정품만 사용합니다.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